

# 더 밝은 일상 위해 고공작업 위험 감수

## 폭염에 맞서는 야외 노동자들

<5·완>배선 노동자

### 악천후에도 2만2천900볼트 다뤄, 부상 잦은 탓 긴장해야 배선 노동자 손 거쳐야 전달되는 전기...“자부심 갖고 일해”

“광주 시민들의 더욱 밝은 일상을 위해 위험하지만 현장으로 나가야죠.” 전기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힘든 오늘 날, 우리 삶 속 곳곳에 ‘밝음’을 지켜내는 이들이 있다. 햇빛의 따가움을 오롯이 받으며, 악천후에도 2만2천900V의 고압이 흐르는 전기배선을 다뤄야 하는 직업군.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배선 노동자가 그 주인공이다.

23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사거리. 이 일대에는 안전모를 쓴 이들이 도로를 바쁘게 통제하고 있었다. 전봇대 위 14m 높이 버킷에 오른 활선 작업자들은 감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인 스마트스틱으로 바쁘게 작업하고 있었고 그 아래 보조를 맡은 이들은 작업 차량 주변으로 안전띠를 길게 두르고 무전기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23일 오전 10시30분경 활선 작업자가 14m 상공에서 스마트 스틱을 사용해 전류를 차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31.5도의 한여름 날씨, 뜨거운 햇볕을 고스란히 받으며 그늘 한 점 없는 작업 현장은 말 그대로 ‘찜뚱더위’였다.

전날 비가 예고된 탓에 습기가 숨을 가쁘게 하던 도중, 후두두 빗방울이 떨어졌다. 하지만 한번 전선 작업을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탓에 이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작업을 계속해 나갔다.

이들은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은 작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해 위험이 덜하지만,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그때 작업 특성상 중간에 그만둘 수 없어 그저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 아주 위험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늘 없는 작업 환경에서 복잡마저도 한여름과는 거리가 멀다. 배선노동자들은 전기로부터의 ‘안전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긴 팔로 된 절연복을 필수로 입어야 한다. 신발 역시 두꺼운 절연 신발을 신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로 된 장갑을 끼 ‘완전 무장’해야만이 일할 수 있다.

오전 11시께 차 안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바로 작업에 돌입했다. 2시간의 휴게 시간이 주어지지만, 마땅히 쉴 공간이 없어 피약밖에 앉아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듯 쉼 없고 위험한 근무 환경은 이들을 아프고 병들게 한다.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20-30kg에 달하는 작업 도구를 들고 6kg에 달하는 스마트 스틱을 사용한다. 이 탓에 이들 중 대다수가 목 디스크는 물론,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

여름철 더욱 힘든 것은 ‘매연’이다. 광주 도심에서 일하는 이들은 매연에 시달

린다. 도로 위에서 일하는 작업 환경상 자동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탓에 퇴근하고 나면 얼굴과 손에 검은 매연 흔적으로 가득하다. 이 때문에 폐암과 같은 중대 질병에도 노출돼 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한 배선노동자는 “100년 잘해도 한번 빠곳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게 바로 배선 노동자다. 전기라는 게 조그마한 실수로도 생명이 위협해질 수 있는 일이다 보니 언제 어디서 사고 날지 모른다. 항상 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광주에서 작업하던 한 노동자는 일하던 도중 팜방울로 인해 200V 저압에서 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전돼 사망했다. 또 같은 해 나주에서는 폭우에 지반이 약해진 것을 모른 채 작업을 위해 전봇대 위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추락해 한 작업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한여름이면 그 위험도는 더욱 높아진다. 안전모 아래로 실재 없이 흐르는 땀과 싸우면서도 보다 높은 곳에 올라 전선을 다뤄야 한다. 햇빛에 눈이 부셔 선글라스로 증무장을 해도 그늘이 없어 그저 ‘고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입을 모아 “우리가 없으면 안 되니까”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자부심은 광주 시민의 ‘빛’이 되어준다는 마음에서 나왔다.

30년 경력의 현장의 한 배선 노동자는 “우리가 있어야 밝은 일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광주 시민의 일상 속 모든 전기는 우리 손을 거쳐야만 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힘든 순간에 다시 일어하게 만든다”고 환한 웃으며 말했다. /김다인 기자

#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중도금 이자 현산 부담

### 내달 7일까지 사전의향서 접수...세부 사항 안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23일 “지난 11일 발표한 주거지원대책을 두고 입주예정자들이 제기한 ‘이자 부담’ 우려에 대해 중도금 이자도 현산이 부담해 상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산은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사전의향서’를 접수받고 세부 사항

을 입주예정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현산에 따르면 사전의향서 접수는 오는 9월 중으로 예정된 본접수를 위한 사전절차다.

이번 접수 기간 동안 현산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세부 계획과 본접수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한다. 앞서 지난 11일 현

산은 ‘주거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입주 예정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현산이 대위변제를 통해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을 대납한다고 한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온전히 입주예정자들의 몫이어서다.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전까지 ‘빛만 더 늘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반발과 우려에 대해 현산 관계

자는 “중도금 이자도 (현산이) 부담해 상환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는 중도금을 환급 조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계약고객과 현산 간 채무 관계나 이자는 일절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 없이 자납한 계약고객에도 자납금액에 기간 이자를 더해 납부한 중도금 전액을 돌려줄 계획이다”며 “84㎡의 경우 약 5천500만원의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로 분양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재영 기자

### 맹견으로 이웃 협박 진돗개 2마리 죽인 전주 징역 2년

맹견인 핏볼테리어를 이용해 이웃을 협박하고 진돗개 2마리를 물어 죽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반(보복협박), 감금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9시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웃

B(28)씨가 핏볼테리어에게 입마개를 채우라고 하자 격분해 “개로 물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0월3일 오후 11시10분께에는 B씨에게 “감옥에서 나온 지 3년이 돼 버렸기간이 지났다”며 “가중 처벌 안 되니 끝까지 감시다”라고 협박했다. B씨와 아내가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두드려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10월4일 오전 2시20분께 핏볼테리어로 광주 북구 한 주차장에 묶여있던 C씨의 진돗개를 공격하게 해 죽였고, 다음날 새벽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진돗개를 공격해 죽인 혐의도 받고 있다. /오복기 기자



2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은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참배하며 열사들의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김에리 기자

## 필립 골드버그 주한 美대사 5·18묘지 참배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23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희생자들의 영령을 추모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렸다.

시종일관 엄숙한 표정으로 참배를 한 골드버그 대사는 1980년 5월 항쟁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유명한 윤상원 열사의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안장된 ‘무명열사’의 묘 앞에서도 관련 내용을 전

해들었다. 그는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들이 겪은 일을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5·18 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강기정 광주시장 접견과 오찬 등 광주 방문 일정을 이어간다.

한편 광주 진보연대는 5·18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주장하며 5·18 묘지 입구에서 반미 시위를 벌였다.

경찰의 철통 경비 속에서 돌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연재영 기자

##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사건 4배 이상 증가

작년 10월 스톱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검찰이 접수한 스톱킹 사건이 10개월 사이 월평균 네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 열 달 동안의 사건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신속 보호 조치 강화, 강력범죄 우려가 있는 스톱킹 범죄자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

등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23일 지시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검찰에는 월평균 136건의 스톱킹 사건이 들어왔는데, 이 수치는 올해 1분기 월평균 486건, 2분기 월평균 649건으로 늘었다. 올해 2분기 월별 평균 사건 수는 작년 4분기의 4.7배에 달한다. /연합뉴스

제사나라 www.jesanara.com

#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 안전기원제 고사
- ▶ 시 제 상
- ▶ 제 사 상
- ▶ 고 사 상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위폐